

소 식

협·회·소·식

우리 나라 도서관분야에 대한 차기 정부의 정책공약을 묻다

우리협회에서는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차기 정부에서는 21세기 국가전략의 주요한 부분으로 도서관 분야에 대한 새롭고 확고한 정책수립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차기 대통령 입후보자 7명(한나라당 이회창,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국민신당 이인제, 국민승리 21 권영길, 공화당 허경영, 통일한국당 신정일, 바른나라정치연합 김한식)에게 우리 나라 도서관 분야에 대한 차기정부 정책공약을 부탁하는 내용의 공한을 대통령입후보자 등록일의 다음 날인 11월 27일 발송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신: ○○○ 당 대통령후보 ○○○ 님

참조: 선거대책본부장·정책위원회 위원장

제목: 우리 나라 도서관 분야에 대한 차기 정부 정책공약에 관한 일

1. 차기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신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차기 정부에서는 21세기 국가전략의 주요한 부분으로 도서관 분야에 대한 새롭고 확고한 정책수립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별첨과 같이 우리 협회의 견해와 함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3. 별첨하는 '우리 나라 도서관 분야에 대한 차기정부 정책공약을 부탁드리는 말씀'을 잘 검토하시어, 귀하께서 차기 정부를 맡으시는 경우, 우리 나라 도서관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시게 될 값진 공약 사항들을 정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홍보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협회의 협력이 필요하신 경우가 있으시다면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귀하께 간단한 설문을 드리오니 여러 모로 대단히 분주하시겠지만 꼭 응답하시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 공약사항은 12월 7일까지 우리 협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에 '설문'도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다시 한 번 귀하의 건승과 귀 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첨부: '우리 나라 도서관 분야에 대한 차기 정부 정책공약을 부탁드리는 말씀' 및 설문지

▪ 우리나라 도서관 분야에 대한 차기 정부 정책공약을 부딪드리는 말씀 ▪

1. 도서관의 중요성

21세기 정보사회에서는 ‘정보능력’이 국토, 인구, 부존자원 따위의 물질적 가치를 압도하고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향후 쓸모있는 ‘정보’를 얼마나 잘 축적하고 활용하는가에 그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도서관은 한 나라의 ‘정보능력’의 중심축입니다.**

따라서 세계 일류국가들로 손꼽히는 나라들은 다 도서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도 일류국가가 되지 못한 나라들은 하나같이 그 나라의 도서관들이 부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은 일류국가의 도서관들은 그 나라가 일류가 된 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좋은 도서관은 국가를 일류로 나아가게 하는 에너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서관은 민주사회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하고, 지적자유와 평등권을 담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으로는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국민의 지적욕구를 충족시키며, 문화적으로는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지방문화의 발전을 뒷받침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우리 나라 도서관의 현황

우리 나라의 도서관의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수적으로 절대 수가 부족합니다. 1996년 말 현재로 공공도서관은 350개관이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대학, 학교, 특수·전문도서관 등이 있으나 이러한 도서관은 국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국민 13만 명이 1개의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선진국의 경우 2만 내지 3만 명에 1개의 도서관이 있는 것에 비하면 비교조차 할 수 없이 적은 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도 너무 적습니다. 현재 공공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총 1,540만 여권으로 1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책은 국민 1인당 0.34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또한 국민 1인당 2권에서 7권에 이르고 있는 선진국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운영할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1995년도 기준으로 볼 때 국립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전문인력(사서)은 법에 규정된 기준의 34%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적인 인력 확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1996년 말 현재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는 1,600여명으로 이 정도의 전문인력으로 4천만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도서관 운영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공공도서관 1996년 운영예산은 350개관 모두 합해서 1,473억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료구입비는 150억원으로 1개관 평균 4,300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비용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구입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현재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연간 4,00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 대부분을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어 공공도서관이 마치 독서실처럼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시민들을 위한 정보제공 기능 수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를 벗어나 공공도서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투자를 통해 학생들은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하여, 공공도서관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은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 적극적인 활용이 선진국으로의 도약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의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 대책이 절실합니다.

3.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무엇보다도 현행 법령의 준수가 요구됩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은 우리 나라 도서관정책의 기본 틀로써, 정보,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포함), 대학 및 연구소 기타 공공기관 등의 도서관설립자 등이 우선적으로 잘 지켜야 합니다. 현재 이 법령의 규정 가운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제9조) 조성과 운영
-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제10조) 활성화
- 국·공립공공도서관의 사서직 관장 보임(제24조)
- 학교도서관 설치 및 사서교사 배치(제34조, 교육법시행령 제37조, 제40조, 제43조)
- 도서관 관련 법정 기준(시행령 제3조, 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5조 1항, 5항) 충족

두 번째로는 공공도서관 행정 체제의 일원화입니다. 현재 도서관 정책은 문화체육부가, 운영은 교육부(교육청) 및 내무부(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원화된 행정 체제로 인해 일선 공공도서관에서는 운영상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공도서관에 관한 행정을 일원화하여 도서관 운영의 간소화, 내실화를 기하여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유용한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재정 투자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도서관에 가면 읽고 볼 만한 자료가 많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서관 자료 확충을 위한 획기적인 재정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보사회에 들어선 지금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도 필요합니다. 아직 공공도서관 등에서는 이러한 도서관의 정보화 사업이 매우 뒤쳐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사회의 도서관답게 만들기 위한 시설 및 자료확충에도 많은 투자가 요구됩니다.

네 번째로, 도서관 인력구조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대는 전문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도 관련 전문가(사서)들에 의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의 사서직 관장 보임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체 직원 5,023명(정원) 중 전문 사서직원은 겨우 1,669명으로 33%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불균형한 인력구성 문제도 해소되어 전문직 비중이 더 증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공무원임용령 상으로는 사서직급이 4급으로 제한되어 있어 오랜 경력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사서들이 부득이하게 사서직으로 근무하지 못하고 직급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결국 국가적으로도 전문가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로 앞으로는 사서직의 직급을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국민들 개개인이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많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 증설에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인구 10만명당 1개관의 수준으로 도서관을 증설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이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정보생활, 문화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공공도서관을 많이 설치, 국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 차기 정부의 도서관 정책에 대한 도서관계의 관심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350개의 공공도서관, 400여개의 대학도서관, 7,700여개의 학교도서관, 440여개의 특수·전문도서관에 근무하는 12,000여명의 직원, 자격증을 소지한 약 40,000여명의 사서, 40여개의 대학 및 전문대학의 문헌정보학 관련 교수와 학생 10,000여명 등과 이들의 가족들은 도서관 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연인원으로 1억 4천만여명에 이르는 각종 도서관 이용자들 역시 도서관 발전을 위한 실천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의 수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낙후되고 침체되어 있던 도서관 현실을 어떻게 타개하고, 고도 정보사회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어떻게 부응할 수 있으며, 올바른 도서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차기 정부의 도서관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학계, 연구자,

대학생 및 문화적 혜택에 목말라 하는 시민 등 모든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모두들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5. 대선 후보자 및 그 소속 정당에 대한 우리 협회의 부탁

한국도서관협회는 1947년 창립하여 현재까지 도서관계를 대표해온 단체입니다. 우리 협회는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모든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사항인 도서관 관련 정책이 이번 대통령선거 기간 중 중요한 선택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귀 후보와 귀 당에서 집권하시게 될 경우 펼쳐나가실 도서관 정책에 대한 공약을 널리 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으로는

- 우선 **우리 협회**로 알려주십시오. 우리 협회로서는 우리 협회의 간행물, 각종 집회 등의 기회를 통하여 우리 도서관계에 널리 알리도록 할 것입니다.
- 후보자의 **TV토론** 등에서 발표해 주십시오.
- 신문 기타 각종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해 주십시오.
- **자체 책자, 유인물** 등으로 별도 제작해서 발표해 주십시오. 만일 이러한 자료를 도서관계에 배포하고자 하시면 우리 협회에서 협조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 정책발표를 위한 **집회 개최** 등 후보자 측에서 생각하는 적절한 방법이 있으면 우리 협회로 제의해 주십시오. 실현 가능하도록 최대한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다.

6. 위와 같은 우리 협회의 부탁말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 우리 협회와 귀 후보자 및 정당 측과의 상호 협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후보자 개인에게 드리는 보충 설문 ■

1. 맥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공도서관은 어느 것입니까?
2. 과거(학창시절 포함)의 도서관 이용경험에 대하여
 - 어느 시절 가장 많이 이용하셨습니까? - 그 시절 얼마나 자주, 주로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셨습니까?
3. 요즘에도 도서관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 어느 도서관을 주로 이용하셨습니까? -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 이용 목적은 무엇입니까?
4. 지난 날의 도서관에 비하여 요즘 도서관이 달라진 점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 있다면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5. 가족 가운데 도서관을 가장 자주, 또는 가장 요긴하게 이용하시는 분은 어느 분입니까?
 - (그 분과의 관계, 그 분의 연령, 하시는 일 등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6. 친·인척 가운데서 도서관과 직접 관계를 가지신 분이 있으십니까?
 - (도서관에서 일하거나, 도서관을 운영하거나, 도서관 관련 행정사무를 보거나, 대학 등에서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을 전공했거나 하는 분 등)
7. 읽으신 책 가운데 후진들에게 권하고 싶으신 책 한 두가지만 알려 주십시오.
8. 도서관에서 일하는 전문직을 '사서(司書)'라고 합니다. 평소 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9. 우리 나라 도서관계 또는 전체 도서관인들에 대하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 세미나 개최

전국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회장교 대구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는 11월 13일, 14일 양일간 경주 교육문화 회관에서 임시총회 및 제17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연락처: 대구대학교 중앙도서관 (전화 053-850-5465, 전송 053-850-5454)>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세미나 개최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회장교 인덕전문대학도서관)에서는 11월 28일 제3회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경인·강원·제주지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도서관의 멀티미디어자료 운영과 전문대학 도서관 평가 및 전자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정보화 시대의 달라져야 할 사서와 역할 등에 관한 주제로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발표논문 제목 및 발표자명은 다음과 같다.

- 도서관 평가 및 전자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윤여송/인덕전문대학도서관장)
- 도서관 전산화 구축사례발표-인덕전문대학 영상정보실 구축사례를 중심으로(남시우/인덕전문대학도서관 주임)
- 정보화시대의 사서의 위상과 역할(조왕근/한양대학교도서관 계장)

인천 부평, 북구 도서관 확장 계획

인천시교육청은 11월 27일 열람석이 부족한 부평 북구 등 2개 도서관을 확장 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부평구 십정동 부평도서관 건물 옆에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4천5백㎡) 규모의 새 도서관을 신축한 후 기존 도서관 건물과 연결해 현재 1천1백16석의 열람석을 2천석으로 확장하기로 했으며, 부평구 부평4동 북구도서관도 현재 도서관 건물 옆에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3천7백㎡)의 새 도서관을 신축, 1천58석 규모의 열람석을 2천석으로 늘릴 계획이다.(동아일보 97.11.28)

나주공공도서관, 관내에 '생활법률무료상담소' 개설

나주공공도서관(관장 김기중)이 지난 11월 18일 도서관내에 '생활법률무료상담소'를 개설했다. 나주공공도서관은 동신대 법학과 황광연·상홍규·채우석교수 등 법학박사 3명을 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 무료로 법률상담을 하도록 했다. 법률상담소는 나주와 인근 농어촌 지역에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률상담소가 없어 주민들이 각종 법률문제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준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법률상담소는 앞으로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재산관계·교통사고·권리침해·고소고발 등 생활 관련 법률 문제를 상담하는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다.

김기중 도서관장은 "도서관의 기능이 문화·정보·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에서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상담소를 개설했다"고 말했다.(광주일보 97.11.20)

여수 현암 시립도서관 대폭 증축키로

여수시는 11월 20일 현암 시립 도서관을 찾는 주민과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도서관을 대폭 증축키로 했다. 시는 사업비 21억7백만원을 들여 덕충동 1904 일대 8,600㎡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1,692㎡ 규모의 열람석 800석을 갖춘 도서관 증축사업을 내년초 착공,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여수 시립도서관은 지난 '85년 한화그룹 창업자인 현암(玄岩) 김중희(金鍾喜)선생이 7,903㎡ 부지에 연면적 1,797㎡, 657석 규모의 도서관을 지어 시에 기부체납한 것이다.(경향신문 '97. 11. 20)

서산도서관, 이전요구

서산도서관이 노후된데다 주위 환경도 나빠 이전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73년 건립된 서산도서관(서산시 동문동 968-33)은 4백35㎡ 면적에 2백석의 열람석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서산도서관은 건물이 협소해 휴식공간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관계 규정이 정한 시청각실, 회의실, 자료실, 열람석의 추가시설 및 자전거 거치장, 옥외 휴게시설 확장이 불가능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서산도서관은 학생들의 단순한 시험공부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주변에 상가 및 여관 등이 많은 교육 환경 취약지역이어서 항상 학생 폭력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각종 개발 사업으로 급증하고 있는 인구 증가에 따른 문화공간 확보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산시 학습관 개설 등과 연계한 이전 확장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서산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서산도서관 건물이 노후되고 비좁은데다 주변 환경도 나빠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도 교육위원회에 이전 건의와 함께 이전에 따른 자료준비 및 위치선정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충도일보 97. 12. 8)

경북대 도서관, 대학원열람실 폐쇄조치로 대학원생들 반발

경북대 구 도서관 5층의 대학원열람실 폐쇄 공고가 붙자 대학원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학교측이 구관 5층에 있던 대학원생 전용 열람실을 폐쇄하고 자료실을 만들어 지정좌석을 주겠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대학원생들의 반발에 대해 도서관장 김종길 교수는 “대학원생들의 자리는 자료실에 지정좌석으로 줄 예정”이라며 “열람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료실로 만들고 거기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학원생들은 “자료실을 만들 경우 오후 시면 비워줘야 되고, 토·일요일에는 개방하지도 않아 큰 불편이 예상된다”며 “대학원생들에게는 연구실로서의 의미를 갖는 열람실 공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영남일보 '97. 12. 5)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이설 본격 추진

12월 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을 서구 화정동 중앙공원내로 이설키로 하고 내년까지 이설부지 5만3천7백여평을 47억원에 매입하는 한편 내년 5월까지 10억원을 들여 새 회관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기로 했다.

새로 건설될 학생회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연건평 5천여평 규모로 기념관, 도서관, 학생극장, 기념탑 등이 들어서며 건축비 3백80억원은 국고지원 1백억원과 현 학생회관 매각비로 충당키로 했다. 현 학생회관은 1천1백80여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연건평 1천5백90평의 규모로 도서관, 전시실, 학생극장 등을 갖췄으나 도심변화가인 동구 황금동에 위치한 데다 좁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있다.

한편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90년 9월 학생회관 이설사업 기본방침에 대한 협약을 맺은 뒤 이설을 추진해 왔으나 '92년부터 '93년까지 3회에 걸친 입찰공고에도 불구하고 현 학생회관(감정가 2백83억원)이 팔리지 않아 추진을 유보해 왔다. (한국일보 '97. 12. 8)

창원대학교도서관, 도서관과 자료실을 시민들에게 개방

창원대학교가 도서관과 자료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별도의 '시민자료 검색실'까지 설치, 호평을 얻고 있다. 창원대는 11월 19일 오후 도서관내 시민자료 검색실에서 '열린 도서관' 개관식을 갖고, 앞으로 시민들이 19만권의 단행본이나 석·박사 논문 등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창원대는 또 도서관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이용자들이 국내외 도서관의 학술정보나 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 했다. (영남일보 '97.11.21)

각·종·행·사

■ 서울특별시공공도서관장협의회, 9회 연합서화전 개최

행사명칭 : 제9회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 주부교실연합서화전
전시기간 : 1997년 12월 12일 (금)~12월 16일 (화)
개막일시 : 1997년 12월 12일 (금) 오후 2시
전시장소 : 세종문화회관 제2,3전시실
내 용 :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 주부교실 회원들의 연합서화전

■ 부산시 공공도서관협의회 세미나

일시 : 1997년 11월 20일 10:00-16:00
장소 : 부산시립시민도서관
주제 : 움직이는 도서관 정보사회 열어가자
내용 : 특별강연-김정수 부산시립중앙도서관 관장 초청강연
1. 공공도서관 정보화를 위한 디지털도서관 (김영귀 부산여대 교수)
2.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오동근 계명대 교수)

사례발표

- 1. 도서관 활성화와 경영 (김경자 부산시립해운대도서관 관장)
- 2. 공공도서관과 CI (오상일 부산시립반송도서관 사서)

■ 제4회 도서관운동연구회(대표 이해연) 토론회

주제 :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운동
 일시 : 1997년 11월 15일 (토) 14:00
 장소 : 연세대학교 상경대학본관 신관 110호
 내용 : 1부 주제 발표
 교육-김명신 (학부모연대)
 정보통신-김형준 (참세상대표)
 지역사회-박효선 (책읽는마을)
 도서관운동-곽주원 (도서관운동연구회)
 2부 주제별 분임토론 및 정리
 연락처 : 전화 02-3273-2172, HiteL IDLEEMH70

■ 경기도사서연구회(회장 강형일) 가을세미나

일시 : 1997년 11월 17일 (월) 10:00-14:00
 장소 : 과천시 호프호텔7층 세미나실
 주제 : 지역문화공간 으로서 공공도서관의 변화
 참석대상 : 경기도지역 공공도서관사서
 내용 : 주제 발표
 임학순(문화정책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상복(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 교수)
 연구발표
 문영순(수원도서관 사서)
 윤명희(과천도서관 사서)
 이정주(성남도서관 사서)
 연락처 : 과천도서관 사서과 박현주(02-503-2993)

■ 한국공공도서관발전연구회, '97 정기총회 및 세미나

일시 : 1997년 12월 5일 (금)~7일 (일)

장소 : 충북 충주시 상모면 수안보온천 상록호텔 2층 회의실

- 내용 : (1) 1997년도 정기총회
 (2) 특강 : “공공도서관의 나아갈 길” (김태승 경기대학교 교수)
 (3) 세미나

- ① “소규모 공공도서관 야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재명 충남당진도서관장)
- ② “공공도서관 사서직원의 역할” (문동식 충북옥천도서관장)

연락처 : 전화 0446-72-1403, FAX 0446-72-1403 (간사 강구식)

■ 서울중등학교도서관교육연구회(회장 박희) '97겨울방학 교원자율연수 개최

- 일 시 : 1) 기초반 '98년 1월 7일(수) (1일간)
 2) 전문반 '98년 1월 8일(목)-1월 9일(금)(2일간)

내용 및 장소 : <1월 7일>-서울 목동도서관

- 1) 교육의 지원, 과정, 결과로서의 학교도서관(박희 숙명여고 교사)
- 2) 자료의 수집과 분류 정리 업무(이덕주 송곡여고 교사)
- 3) 도서관운영의 실제 1(허병두 승문고 교사)
- 4) 도서관운영의 실제 2(정윤희 방학중 교사)

<1월 8일>-동구여상도서관

- 1)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교육(오진주 동구여상 교사)
- 2) WWW와 LAN상에서의 도서관관리 프로그램 운영(한수정 논산대건고 교사)

<1월 9일>-영등포고도서관

- 1) 미국, 일본 학교도서관 발전방향이 주

는 시사점(함명식/금옥여고 교사)

2) 분과별 토론

참가비: 기초반 1만원, 전문반 2만원

문의: 송곡여고 사서교사 이덕주(018-258-8136)

(2) 최성진 교수 퇴임기념호(제31권 제4호)
봉정식

(3) 회원 출판 기념회

(4) 송년만찬회

연락처: 성균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내

(전화 760-1211,0330, FAX 760-0326)

■ 서울중등학교도서관교육연구회 (회장 박희)

월례발표회 및 정기총회 개최

일시: 1997년 12월 13일 (토) 10:30 ~ 14:00

장소: 숙명여자고등학교 도서관

내용: 1. 월례발표회(강좌) “〈도서관인윤리선언〉의
배경과 선포의 의 그리고 실천”
(이용훈 한국도서관협회 기획부장)

2. 정기총회 및 다과회

신임원명단: 회 장(박희 숙명여자고등학교)

부회장(마일섭 경기고등학교,
함명식 금옥여고등학교)

감 사(설정엽 서울고등학교,
이경희 서초고등학교)

총 무(추후 신임원진에서 선임)

■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저작권 세미나

일시: 1997년 11월 18일 14:00-18:00

장소: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24층 중회의실
(서울역 소재)

주제: 멀티미디어 저작권의 집중관리

주제발표자: · 디지털 도서관 정보서비스와 저작권
(이두영 중앙대 교수)

· 미술,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이상정 경희대 법대 교수)

· 독일 멀티미디어법 해설
(유인모 인천시립대 법대 교수)

· 멀티미디어와 저작권법 개정
(황적인 서울대 명예교수)

토론자: 남준영 전주대 교수 / 박준상 한국사진작가
협회 저작권분과위 부위원장 /

이호홍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책임연구원

사회자: 이정민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

연락처: 02-876-8057~9

■ 한국문헌정보학회(회장 권기원), '97 정기총회

일시: 1997년 12월 10일(수) 18:30

장소: 올림픽아호텔 12층 갤럭시홀(평창동 북악터널
입구)

내용: (1) 1997년도 정기총회

도·서·관·개·관

■ 국내 첫 전자도서관 개관

개설일시: 1997년 11월 25일

개설기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연구개발정
보센터, 한국과학기술원 과학도서관, 한국
학술진흥재단 등 5개 도서관

주 소: <http://www.dlibrary.or.kr>

제공정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국내도서 69만종의
서지사항, 고서 3천권의 본문, 한국과학기술
술원 과학도서관소장 석·박사학위논문과
교수연구논문중 195편 본문

한국학술진흥재단 소장 국외취득 박사학위

논문 1천편의 본문

기타사항 : 1998년에는 법원도서관 산업기술연구원의
법률 및 산업기술정보까지 포함할 예정

계초등학교 앞

규 모 : 부지 519평, 연건평 319평. 지하1층 지상2
층 건물

■ 광주시립산수도서관 개관

일 시 : 1997년 11월 14일

위 치 :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산수근린공원 안

연락처 : 063-232-6694

관 장 : 조영추(사서5급)

규 모 : 지상 5층 지하 1층 연건평 1370평

열람실(1300명 수용), 종합자료실, 사회교육
실, 시청각실 등

■ 문경시립도서관 개관

개관일 : 1997년 12월 9일

위 치 : 문경시 점촌동 중앙공원 내

규 모 : 1천2백평 부지. 지상 2층 도서관. 장서 5만
권의 종합자료실과 열람석 60석

연락처 : 0581)50-6422

■ 통영시농어촌 공공도서관 개관

개관일 : 1997년 11월 18일

위 치 : 통영시 산양읍 남평리

연락처 : 0557-43-6494

관 장 : 조선환

규 모 : 대지 739평, 연건평 302평, 지상2층 (1996
년 착공)

1층 : 300석의 열람석, 주부 아동열람실, 직
원사무실

2층 : 컴퓨터 정보자료실 (멀티미디어 자료열
람) 시청각실(영상자료 영화상영)

음악감상실 개인 음악감상공간 문화사
랑방 등

장 서 : 농어촌에 필요한 4천1백88권의 장서 비치.
향후 한 해2천권의 장서 구입예정.

이용시간 : 3~10월 오전 9시~오후9시, 11~2월 오
전 9시~오후10시까지

■ 마산시립 회원도서관 내서분관 개관

개관일 : 1997년 12월 1일

위 치 :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 삼계택지개발지구 삼

■ 순천향대학교 향설기념 중앙도서관 개관

일 시 : 1997년 10월 15일

주요사항 : 최근 '향설(대학 설립자 서석조 선생의
호) 기념 중앙도서관'(2000석)을 개관하
면서 '열린 도서관'을 선언하고 중앙도서
관을 지역민들에게 완전히 개방. 지역 초·
중·고생과 일반인들에게 열람실과 음성·
영상자료실 이용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신분증만 제시하면 장서(30만권)를 무료
로 1주일까지 빌려줄 예정. 나아가 주민
이용 편의를 위해 '전자출입증'을 만들어
줄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 조선대 공업전문대 도서관 개관

개관일 : 1997년 12월 3일

위 치 : 조선대 공업전문대(학장 조정환) 내 3호관
5층

규 모 : 3호관은 총 건축면적 4천여평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특 징 : 교육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완공된 3호
관은 지하에는 식당 등 편의시설, 1층은 회
의실, 2~4층은 강의 및 실험실, 5층은 도서
관으로 활용하는 등 학생 및 교직원 복지향

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기 타: 사업비 71억원 투자

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

■ 서울시, 문화정보자료실 개관

개관일: 1997년 12월 2일
위 치: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1층
규 모: 영상실(30석), 비디오-오디오코너(비디오4대, 음향기기8대), 컴퓨터통신코너(PC6대) 문화예술관련 서적 3천여권
기 타: 영상실은 세미나 강좌 등 문화예술에 관한 교육장소로도 활용예정.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서소문별관으로 가면 된다.
개관시간: 매일 오전 9:30~오후 4:30
연 락 처: 02-3707-8325~6

■ 강서구 정보도서관 개관

개관일: 1997년 12월 5일
위 치: 서울시 강서구 등촌3동 사무소 3~4층
규 모: 230평. 데이터베이스센터·인터넷코너·음향 영상실과 2만5천여권의 장서 보유
기 타: 구는 도서관에서 컴퓨터 교육 등 주민을 위

■ 파랑새 어린이 도서관 개관

개관일: 11월 17일
위 치: 서울시 중화1동 수성빌딩 202호. 목동초등학교 앞
연락처: 02-209-0026
관 장: 전영순
규 모: 15평
장 서: 어린이책 및 학부모용 책 2천여권
기 타: 독서클럽, 유아그림책반, 독서-글쓰기 교실, 문화학교, 독서상담 같은 정규 프로그램을 비롯, 인형극공연, 그림책 슬라이드-비디오 상영 등 다양한 행사로 어린이독서운동을 이끌 계획

● 어린이도서관 ●

▲서울 사직동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02-736-8911) ▲부산 [들꽃이야기](051-621-9755) ▲부천 [푸른어린이도서관](032-324-3284) ▲분당 [으뜸과 꼴찌](0331-47-1935) ▲송탄 [동화나라](0333-666-3430) ▲강릉 [보람의 집](0391-648-6013) ▲인포어린이도서관: 에스콰이어 문화재단이 전국 20여곳에 운영. 02(722) 0184

주·요·정·책·이·슈

■ IMF경제시대를 맞은 도서관계, 새로운 대안으로 나서야

‘다니던 직장이 하루 아침에 문을 닫고 직위 연령에 관계없이 회사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늘어난다. 대낮인데도 공원이나 도서관에는 어깨가 축 처진 30~40대 남성들의 모습이 눈에 띄고 인력은행에 출근하는 벡타이부대도 늘어나고 있다. 해고를 면한 사람들도 월급이 동결되면 다행이다. 남편들의 실직에 대비, 일자리를 구하는 아내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진다’

외환위기와 경기불황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현재의 직장에 위기감을 갖는 직장인이 늘어나면서 퇴근후

아르바이트에 나서거나 가장의 실직에 대비하여 자격증을 따려는 주부들이 도서관으로 몰리고 있다. 또 단기일에 기술교육을 배워 취업전선으로 나가려는 문의전화가 대구여성회관, 대구시종합복지회관, 대구 YWCA 일하는 여성의 집에 쇄도하고 있으며, 종전에는 3D업종으로 분류돼 기피해오던 도배교육.파출부에도 여성지원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또 일부 중년 남성들은 일하는 남성의 집은 왜 없느냐는 항의성 전화를 걸기도 해 실직공포에 시달리는 가장들이 적지않음을 반증하고 있다. (중략)

대구시내 시립도서관에도 주부수험생이 많아지고 있다. 취업난과 경제위기 등 불안감 속에서 미리 자격증이라도 따려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대구효목도서관 컴퓨터반의 경우 주부수강생이 절대다수이다. 정인숙씨(31.대구시 남구 대명동)는 아침이면 두들도 안된 아들을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남부도서관으로 출근한다. 정씨는 조합활동 경험을 살려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효목도서관에는 같은 처지에 있는 주부들이 눈에 많이 띈다. 회계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손해사정인 등 시험과목도 다양하다. 주부수험생은 남편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인 오전 10~11시 사이에 도서관에 나온다. 도서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낮시간에 오는 여성들은 20~30% 정도. 효목도서관 열람과 관계자는 시험기간 중에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지만 평상시에는 주부들이 적지않다고 전한다. (하략) (대구매일신문 97. 12. 10)

■ [공공건물] 방음—방진시설 의무화

앞으로 종합병원 학교 도서관 공동주택 등 공공건물을 건축할 경우 교통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주민의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될 때 시공회사는 반드시 도로주변에 방음벽이나 방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환경부가 10월 29일 확정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령에 따르면 도로에 인접한 종합병원 학교 공공도서관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건축전에 시공회사가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방음벽시설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설치를 의무화했다. (국민일보 97.10.29)

■ '98학년도 교사 신규임용계획 발표, 사서교사는 7명 뿐

—학교도서관 발전의 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던 도서관계 실망!

사서교사 신규채용 인원이 7명으로 확정 공고되었다. 초등학교는 부산, 대구, 인천 각 1명 등 3명, 중등학교는 부산, 대전, 충남, 경북 각 1명씩 4명이다. 이는 19명을 신규임용하겠다고 교육부의 발표와는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나머지 12명도 사서교사로 신규임용은 되지만 새로 뽑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교사 중에서 전과 신청을 받아 사서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발령을 낸다고 한다. 교육부 교육정보자료담당관실 (전화 720-6612, 3)에서는 〈멀티미디어 도서관〉이라는 교육개혁 추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서교사 신규채용을 적극 주장했지만 나머지 시도 교육청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사서교사 정원은 교육부에서 정해서 교육청에 배당하지만 그 인원을 신규로 할지 과원교사로 임용할지는 각 교육청의 교육감 위임 사항이기 때문이다. 1차 시험은 중등은 12월 13일 (토), 초등은 12월 23일 (화)에 각각 치러진다.

■ [제주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외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자료구입비 지원은 외면,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 각 3개, 남제주군 2개 등 모두 11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올해 12월중 성산일출도서관이 완공될 예정이다. 또 올해 조천읍 및 서귀포시 공공도서관(효돈지역)이 공사에 들어갔으며 연차적으로 도내 5개 면지역에도 공공도서관을 시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자료구입비는 해마다 오히려 축소, 막대한 돈을 들인 도서관들이 중·고등학생들의 공부방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96년의 경우 동녕도서관 1천1백25만원, 송악·한수폴도서관 6백25만원, 제남도서관 5백만원 등 4개 도서관에 2천8백75만원이 지원되는데 그쳤다. 그나마도 이 중 1천8백75만원은 국비지원이었으며 도비 지원은 1천만원에 불과했다. 올해의 경우도 송악·한수폴·동녕·제남 등 4개 도서관에 각각 6백49만원씩 모두 2천5백75만원의 국비만이 지원됐을 뿐이다.

제주도는 또 내년에도 1개 도서관에 6백만원씩 6개 도서관에 3천6백만원만을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어서 도서관마다 자료구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제민일보 97.11.20)

■ [광주시] 공공시설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59%뿐

광주 시내 공공시설물의 40% 이상이 아직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시내 공공업무시설 673곳 가운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곳은 전체의 58.5%인 309곳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달 14일 문을 연 시립 산수 도서관은 복도와 계단에 장애인을 위한 보조 시설물이 없고 장애인용 전화기도 설치되지 않았다. (중략) 이 지역 장애인들은 내년 6월 착공하는 광주 상무 신도심 광주시 신청사를 비롯, 영주종합운동장 주경기장, 5·18기념문화회관 등의 공공 시설물에 장애인 편의시설 법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시민 10명 중 한명 꼴인 13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경향신문 97.12.1)

■ [환경부] '환경개선 제안' 최우수상 수상

환경부는 지난 10월 한달동안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개선 국민총제안'의 우수공모자 13명을 1일 표창했는데, 그 중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선정된 '담쟁이 덩굴을 이용한 녹화'는 공공기관, 고속도로 주변, 도서관, 호텔, 아파트단지 등의 외벽에 담쟁이를 올려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꾼다는 점이 후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일보 97.12.1)

■ [환경부] 팔당·대청 특별대책지역 건축규제 강화, 도서관 등은 입지 허용

환경부가 11월 24일 마련한 ‘팔당·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관리강화방안’에 의하면 외지인이 특별대책지역으로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제 거주민에 한해서만 건축을 허가하는 등 건축규제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 중에서 공공복리시설에 대해서는 입지가 허용되도록 하였는데, 이런 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해석을 막기 위해 초.중.고교와 도서관 등 공공복리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공복리시설만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연세대 학부제 진통…일부학과 탈퇴결의

학부제 시행 2년을 맞은 연세대가 일부학과의 학부 탈퇴결의와 일부 단과대학의 계열화 선택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10월 24일 연세대에 따르면 (중략) 문헌정보학과도 인문학부에 있을 경우 같은 학부의 다른 「인기전공」에 학생들을 빼앗겨 결국 과의 존립기반마저 무너질 것을 우려, 소속 교수 만장일치로 인문학부 탈퇴를 결정했다.

학부제와 계열화는 특정 학년 진급때 전공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교수들의 경우 계열화는 기존의 학과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과개념없이 학부 소속에 불과한 학부제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사회과학대의 계열화 결정은 소속감에 위기를 느낀 상당수 교수들이 학부제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한 것으로 학교측은 분석하고 있다. (중략)

교평 중간사인 韓堅遇교수(법학)는 『토론회에서는 각 단과대별로 학부제의 모든 문제점이 도마위에 오를 것』이라며 『학부제를 찬성하는 교수들사이에서도 현행 학부제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당국은 『일부 학과의 별도 학부독립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학부제의 문제점은 앞으로 최소 4-5년을 시행하고 난 뒤 검토할 문제이지 시행 2년만에 선불리 뜯어고칠 수는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향신문 97.10.24)

국·내·도·서·관·계·동·향

■ 교육부 ‘대학도서관 정보화현황’ 발표 : 국내 대학도서관 장서 평균 25만권

국내 대학들은 평균 25만8900여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100만권 이상의 장서를 가진 대학은 서울대 등 7개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7일 교육부가 전국 184개 4년제 대학의 도서관 현황을 집계해 발간한 「대학도서관 정보화현황」에 따르면 96년말 현재 대학 도서관 장서수는 4764만

6622권으로 대학당 평균 25만8949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95년말의 4279만3999권 보다 11.3% 늘어난 것이나 대학수가 95년 보다 20개대가 늘어 대학당 평균 장서수는 95년의 26만939권보다 오히려 줄었다.

이중 서울대가 190만3245권으로 가장 많고 △고려대 150만1437권 △연세대 141만5578권 △한양대 133만964권 △이화여대 108만7974권 △경희대 102만4833권 △홍익대 101만196권 등 7개대가 100만 권 이상의 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대학들의 학생 1인당 평균 장서는 42.2권으로 95년의 38.2권보다 4권이 늘었다.

이중 1인당 장서가 100권을 넘은 대학은 광주가톨릭대(415.7권) 등 12개대이며 △서울대 80.8권 △고려대 62.4권 △연세대 62.1권 △이화여대 67권 등이다.

대학들의 학생 1인당 도서자료 구입비는 8만7045원으로 95년의 6만8800원보다 26.5% 늘었으며 국립 7만7898원, 사립 9만717원으로 조사돼 사립대가 도서 자료구입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도서관 전산망이 구축된 학교는 전체의 90.2%인 166개대에 달하며 대학들은 도서관 전산화를 위해 1년간 310억8400만원(95년 대비 7.1% 증가)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 '97 한해 도서관 및 독서진흥사업에 약 98억원 지원되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 1년 사업 결산-

지난 12월 4일 열린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위원장 김종민 문화체육부차관) 회의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올 한해 우리정부는 △ 서울성동도서관, 강원 정선도서관 등 총 23관 도서관 건립 지원에 83억원 △ 부산 부전도서관 등 총 9대 움직이는도서관 차량구입비 지원에 2억2천5백만원 △ 대구 달성도서관 등 총154개관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에 10억원 △ 강원 보람의 집 문고 등 100개소 문고 자료구입비 지원에 등 2억원 △ 한국점자도서관, 부산맹인점자도서관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제작비 지원에 2관 1억 4백만원 등 각종 도서관 및 독서진흥사업에 약 98억원을 지원하였다. 주요 추진사업 중에서는 「독서가족」 은행통장 신규 발매 '국가전자도서관 구축'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직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등이 눈에 띄었으며, 내년도에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5억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제작에 1억2천1백만원, 농어촌 도서관 표준설계서 작성에 3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개선사항으로는 「전국도서관대회」에 「전국도서관인큰모임」을 통합하여 매년 9월 독서의 달에 행사를 개최하고 동대회 기간 중 「독서문화상」을 시상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며, 현안으로는 △ 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 조성 △ 공공도서관장 사서직 임용 △ 국립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 △ 사서자격증 교부 민간위탁 추진 등이 논의되었다.

■ 한국사립문고협의회 창립대회 개최

한국사립문고협의회(회장 신동석) 창립대회가 11월 28일(금) 기독교선교회불선교센터(서울 양재동 소

재)에서 개최되었다. 이 협의회는 주민 공동체 생활문화 가꾸기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독서생활 문화정착을 위한 독서강좌, 독후감공모, 문고설치운동, 낙도,산촌,탄광촌마을 도서보내기운동 등 주민들의 문화향상과 평생교육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립문고협의회 창립을 추진하고 있는 신동석 씨는 이전에 ‘작은도서관전국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그동안 임원진들과 적지 않은 갈등을 빚어 왔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협회에서는 이번 ‘한국사립문고협의회’ 창립 움직임은 ‘작은도서관전국협의회’와의 내부적 마찰로 인해 작은도서관전국협의회 소속 일부 문고관계자들이 별도로 또다른 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진행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 농어촌 도서관 건립 붐

소의지역에 양질의 정보전달과 독서인구확충을 위한 3백60석 규모의 농어촌도서관이 오는 12월 철원군 갈말읍에 개관하는데 이어 98년 12월에는 평창진부. 정선사북농어촌도서관 등이 잇따라 개관한다. 또 98년에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 삼척시 근덕면, 고성군 간성을 등 3곳 중 2곳에 농어촌도서관이 추가로 건립되는 등 2002년까지 도내 읍면동에 1개꼴로 보급된다.

한편 전국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춘천에 지역주민의 정보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자도서관 건립이 추진된다. 춘천시가 99년까지 석사동일대 9천9백10평에 53억원을 들여 추진중인 춘천시립전자도서관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에 전자도서실 70석, 전자서고, 영상회의실과 7백석의 열람실을 갖추게 된다. 춘천시관계자는『춘천시립도서관내에 운영중인 정보도시 사이버파크의 이용실적이 높고 주민들의 정보욕구 충족과 시가 추진중인 멀티미디어산업단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첨단전자도서관을 건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자도서관은 동화상 음성통신망 인터넷메인컴퓨터 광학문자인식시스템 등을 갖추고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실등 국내외 10여개 전자도서관과 네트워크망을 구축 최첨단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도내에는 시군립도서관 28개소, 교육청도서관 21개소, 농어촌도서관 18개소가 운영중이다. 농어촌도서관 건립에는 국비 5억원 지방비5억원등 총10억원 지원된다.(강원일보 97.11.11)

■ 안산 시립도서관 3곳, 기술-예술등 특성화

경기 안산시에는 시립도서관이 세 군데 있다. 모두 규모는 작지만 도서관별로 기본도서관과 함께 특색 있는 자료를 보유, 시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안산시는 2월부터 「도서관 특화사업」을 추진, 각 도서관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자료와 책을 따로 수집해왔다.

반월 시화공단 부근인 원곡동 관산도서관은 전문기술서적, 예술인아파트 등 주거지역에 위치한 성포도서관은 문화예술과 교양서적, 한양대와 해양연구소 등이 있는 사동 근린공원내 감골도서관은 각종 학술자료 중심으로 꾸미고 있다.

열람석 1천1백석과 5만3천권의 장서를 갖춘 관산도서관은 분기별로 1천5백권씩 기술서적을 꾸준히

구입, 현재까지 1만5천여권의 전문기술서적을 갖췄다.

6백60석 규모로 청소년과 주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성포도서관은 현재 1만여권의 기본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설 등 가벼운 서적을 구입할 계획.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백50평 규모에 1천석의 열람석을 갖추고 8월1일 문을 연 감골도서관은 사회과학 등 각종 학술자료 및 학위 논문을 비치,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활동을 측면 지원할 계획이다.

현대근 (玄太根·42)관산도서관장은 『서로 중복되는 자료를 피하고 각 도서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도서관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도서관별 보유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전산망을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97.11.25)

■ **해남군 내년 예산 1,650억 상정, 도서관 건립엔 22억원 배정**

해남군은 총 1천6백50억원 규모의 내년도 해남군 예산안을 마련, 군의회에 상정했다. 해남군의 98년 예산은 일반회계 1천4백억원, 특별회계 2백50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5% 가량 증가한 것이다. 군은 이중 도서관 건립에 2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광주일보 97. 11. 24)

■ **상아탑 외환위기 『불뚝』…서울대,외국잡지 구독중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외환위기가 상아탑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서울대는 중앙도서관에서 구독중인 외국학술잡지 가운데 2백65종의 구독을 중지키로 하고 28일 그 목록을 각 단과대에 통보했다. 서울대 진교훈(秦敎勳)도서관장은 『잡지 구독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달리고(高)」현상으로 인해 선불로 송금해야 하는 외국학술잡지의 구독에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은 고려대 연세대 등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 고려대 중앙도서관 관계자는 『환차손이 늘어나 외국잡지 및 서적, CD롬 타이틀 구입을 놓고 고심중』이라면서 『회계연도가 12월인 서울대와 달리 고려대는 내년 2월이어서 일단 환율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동아일보 97.11.28)

국·외·도·서·관·계·등·향

■ **대영도서관 이사…1천2백만원 장서 99년까지 옮겨**

카를 마르크스, 마하트마 간디, 조지 버너드 쇼, 레닌 등 세계적 명사들이 이용했던 지식의 보고(寶庫) 대영(大英)도서관이 1백40년만에 새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10월 25일 문을 닫았다.

대영도서관의 새집은 런던 중심가 세인트 판크라스역 근처에 자리잡은 평범한 붉은벽돌 건물. 건축가 폴린 세인트 존 윌슨이 설계한 새 도서관 건물은 계획수립 후 35년만에 완성됐다. '62년 계획이 세워진

후 해마다 건축비가 치솟아 결국은 5억1천1백만파운드(8억5천8백만달러)의 돈이 들었다. 1천2백만권이나 되는 대영도서관의 장서는 이미 이사를 시작, '99년까지 새 건물내의 총연장 3백20km의 서가에 비치된다. 장서 가운데는 구텐베르크 성서, 영국의 존왕이 1215년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한 마그나 카르타(대헌장) 등 세계적 보물들이 포함돼 있다.

새 도서관의 개관일은 11월 24일. 열람석은 5백석이지만 도서관측은 '99년까지 1천2백석으로 늘릴 예정이다. (한국일보 97.10.29)

■ 미국 부시 전 대통령 기념관 11월 7일 개관

지난 '91년 걸프전을 지휘했던 조지 부시 전 미국대통령 (73세) 을 기리는 조지 부시 기념관이 7일 문을 연다. 기념관이 자리잡을 곳은 텍사스주 칼리지 스테이션시에 있는 A&M대학내. 총 8천3백만달러 (한화 약 8백8억원) 를 들여 지은 이 도서관·박물관 겸용 복합기념관에는 부시의 30여년에 걸친 공직생활과 관련된 4천만쪽의 공문서, 2백만장의 사진, 수천시간분의 비디오 테이프가 소장된다. 또 2차 세계대전 당시 부시가 탄 전투기가 격추됐다 잠수함 편백호에 구출되는 순간의 비디오 스크린과 대통령 재임시절 휴양지점 회담 장소로 애용했던 캠프 데이비드의 모형도 전시돼 있어 흥미를 끌고 있다. 이와 함께 부시 내외가 세상을 뜰 경우 묻힐 장소까지 마련돼 있다. 부시 전대통령은 다른 대통령 기념관들의 경우 대개 대통령 집무실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 보통이나 자신은 뭔가 색다른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념관을 찾을 사람들이 나의 대통령 직무성취에 대해 나름대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므로 회고록은 쓰지 않을 작정” 이라고 밝혔다.

미국 전역에는 31대 허버트 후버 대통령에서부터 지금까지 현직인 클린턴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든 역대 대통령의 기념관이 건립돼 있다. 한편 이 기념관 건립을 위한 모금에는 걸프전 당시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공격을 지지했던 아랍 부호들이 상당수 참여했으며 이가운데는 1백만 달러 이상의 거금을 낸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97.11.6)

주·요·도·서·관·인·동·정

■ 한국전산원이 주최한 올해 [정보화촉진을 위한 논문 현상공모]에서 최정식(한양대 도시공학)씨의 [정보도시의 개발방향 연구]가 대상을 받았다. 우수상은 최성환(대구대 문헌정보학)씨의 [도서관의 정보화 방향]에 돌아갔으며, 조광현(동국대 사회학)씨와 김도훈(한국과학기술원)씨가 장려상을 받았다. 논문은 인터넷 홈페이지(forum.nca.or.kr/journal)에서 볼 수 있다. ☎ 0331(260)2730.

단·신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전화번호 변경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전화번호가 '97년 11월 17일 이후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학과사무실 : 0331-249-9175
- 학과 FAX : 0331-249-9103
- 박상균 교수 : 0331-249-9176
- 한윤옥 교수 : 0331-249-9177
- 최은주 교수 : 0331-249-9178
- 김태승 교수 : 0331-249-9179

개·인·회·원·등·정

■ 운영대 교수 화갑 기념논문집 발간

운영대(상명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11월 14일 화갑을 맞아 기념논문집을 발간하고 올림피아 호텔에서 봉정식을 가졌다.

■ 김효정 교수 화갑·출판기념회 개최

김효정(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12월 12일 중앙대학교 대학원국제회의실에서 화갑 기념논문집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다.

■ 정정식 열람과장, 서울시도서관연구회 신입회장에 선출

정정식 서울목동도서관 열람과장이 12월 15

일 개최된 서울시도서관연구회 정기총회에서 '98년도 신입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신·임·회·원

※ 환영합니다 ※

〈단체회원〉

- 목포여자중학교도서관('97.10.16)
- 애월읍공공도서관('97.10.1)
- 부산광역시립기장도서관('97.10.24)
- 연구개발정보센터('97.10.29)

〈개인회원〉

- 보통회원
- 김윤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97.10.10)
- 이기옥(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97. 10.10)
- 이경희(서울마포도서관, '97. 9.22)
- 구승서(경기도박물관도서관, '97. 10.20)
- 박관우(경기대학교금화도서관, '97. 10. 28)
- 정은남(울산동부도서관, '97. 10. 23)
- 최수영(감사원 국제협력담당관실, '97. 10.27)
- 윤충노((주)아이·티·아이, '97.11.13)
- 김지홍(대구대학교중앙도서관, '97.11.14)
- 평생회원
- 허경자(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97.9.30)
- 김정애(中國 중앙민족대학도서관채판부, '97. 11. 14)
- 장태섭(성균관대학교도서관, '97.11.27)

사·무·국·일·지

〈1997년〉

- | | | | |
|---------|--|---------|---|
| 10월 30일 | 제35회 전국도서관대회 개최
~11월 1일 | 12월 9일 | 1997년도 제1차 도서관문화편집위원회 개최 |
| 11월 6일 | 캐나다 도서관계 인사 방문 | 12월 10일 | 한국점자도서관 개관 28주년 기념식에 화분 보냄 |
| 11월 21일 | 이용훈 기획부장, 사단법인 한국민간자격협회 창립기념 심포지움 참석 | | TV합동토론회 제작부에 도서관정책에 관한 질문사항 송부 |
| 11월 28일 | 차기정부 대통령후보자들에게 〈우리나라 도서관분야에 대한 차기정부 정책공약에 관한 일〉공한 발송 | 12월 13일 | 이용훈 기획부장, 서울중등학교도서관교육연구회 월례발표회 및 정기총회에 강연차 참석 |
| 12월 4일 | 사공철 회장,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 회의 참석 | 12월 26일 | 원로 도서관인 초청 간담회 |
| 12월 5일 | 조원호 사무총장, 한국공공도서관발전위원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참석 | | |

▶ “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기탁을 위하여 성금하신 분들
(’97. 9.~12. 합계 원, 누계 : 18,932,983)

※ 고맙습니다 ※

허경자(대구중앙도서관) 2만원 홍순영(서울송파도서관) 1만원
고은자(현대해상화재보험(주)) 2만원

“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도서관인 여러분의 성금 기탁을 계속 접수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圖書館文化 95년 9·10월호 35p-41p, 11·12월호 29p-32p, 96년 3·4월호 66p-70p 참조)

● 은행계좌번호 : 국민은행 / 088-25-0011-260 / 한국도서관협회

● 상 답 · 문 의 : 전화 (02)535-4868

·FAX (02)535-5616